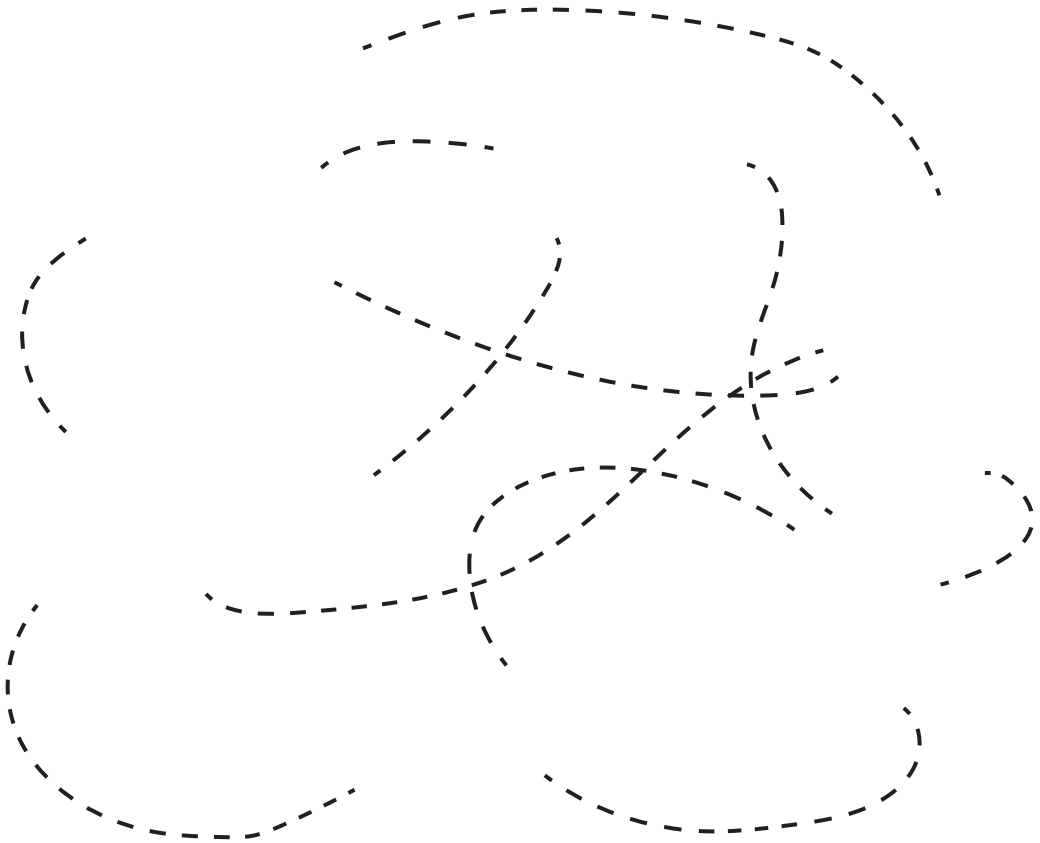
2020년 청년 지역교류 지원사업 - '연결의 가능성'

I·SEOUL·U



제주에 Ze를 더하다

[제주(Ze州) 청년회관 : 서울 x 제주]

제주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
3층501호, 쉬는시간, 이상의이상, 선을넘는사람들

위 지원사업은 서울특별시의 보조금을 지원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3 ..... **2020 제주청년회관 소개**

4 ..... 제주청년회관은?

5 ..... 기획인단

6 ..... **2020 제주청년회관 활동**

8 ..... 제주청년예술인잡담회

10 ..... QUEER SPACE : 광장에서 집앞까지

14 ..... **2020 제주청년회관 아트레지던시**

16 ..... 아트워크숍 1. 만남의방법

18 ..... 다크그린투어 1. 강정마을

20 ..... 아트워크숍 2. 융복합

21 ..... 제주청년회관 네트워킹파티 : 영상제

22 ..... 다크그린투어 2. 제주서부

24 ..... 오픈스튜디오

30 ..... **제주청년회관 기획인단 이야기**

32 ..... **감사한 분들**

2020
제주청년회관
소개

제주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

× 예술행동플랫폼 3층501호

× 이상의 이상

× 쉬는시간

× 선을 넘는 사람들

- 제주청년회관은?

"제주에 Ze를 더하다!" 제주(Ze州) 청년회관

제주청년회관은 서울-제주 지역 청년들간의 교류 네트워크를 통해 확장된 성평등문화예술교류 활성화와 지속적인 상호작용을 목표로 시작된 기획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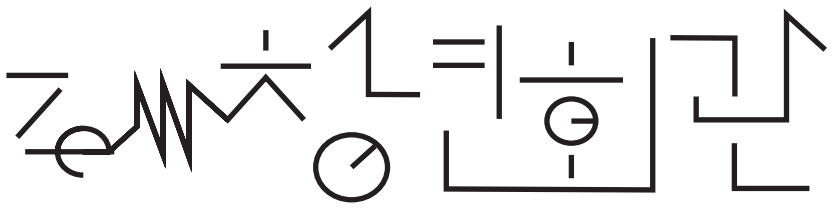
'제주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를 중심으로, '예술행동플랫폼 3층501호', '이상의 이상', '쉬는시간', '선을 넘는 사람들'의 총 5개 단체가 모여 시작된 해당 기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의 지역불균형, 서귀포시 청년네트워크 부재, 퀴어문화의 서울 중심적 지역불균형이라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1) 청년들이 모든 것을 실험하고 쉴 수 있고, 자생적이며 지속적인 네트워킹이 늘상 일어나는 퀴어아트레지던시 조성

2) 서울과 제주의 퀴어청년예술가들이 지역문제에 대해 해석하고 예술을 매개로 서울시민, 제주도민과 만나는 예술제 추진

3) 서울지역의 청년들과 제주지역의 청년들이 상호작용하고 자연스러운 지역간 청년 문화 조성

4) 청년들이 가진 '고민'을 공유하고 순환 작동하는 상호작용
을 실험하고 시행합니다.



- 기획인단

제주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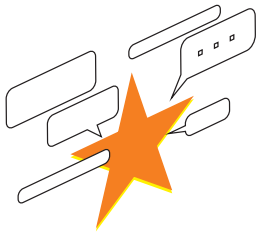
지워지고 배제되어 온 성소수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성소수자 혐오에 맞서 평화와 인권 의제를 제주에서 끌어올리고자 합니다. 주로 문화축제라는 형식으로 성소수자 인권을 이야기하는 비영리 인권 단체입니다.

신현정

예술행동플랫폼 3층501호

사회의 다양한 실재를 발견하고, 예술의 언어와 방식으로 분명하게 연대합니다.

김민경 (사랑해)
s4ranghae.com



정민채 (으네)

이한솔 (올리)

이상의 이상 http://e-sang.org

거리예술가인 이상, 이상언(예명, 본명)과 그의 활동을 응원하는 사람들이 모여 만든 비영리민간문화예술단체로서 장르와 매체의 경계 없이 다양한 형태의 문화예술을 발굴하고 창작하고 표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언 (이상)

쉬는시간

문화예술기획자, 지역활동가, 예술가로 이루어진 문화네트워킹 기획단체입니다. 살고 먹는 방안에 대해 고민 하면서 일상에서의 쉬어가는 페이지를 함께 만들고자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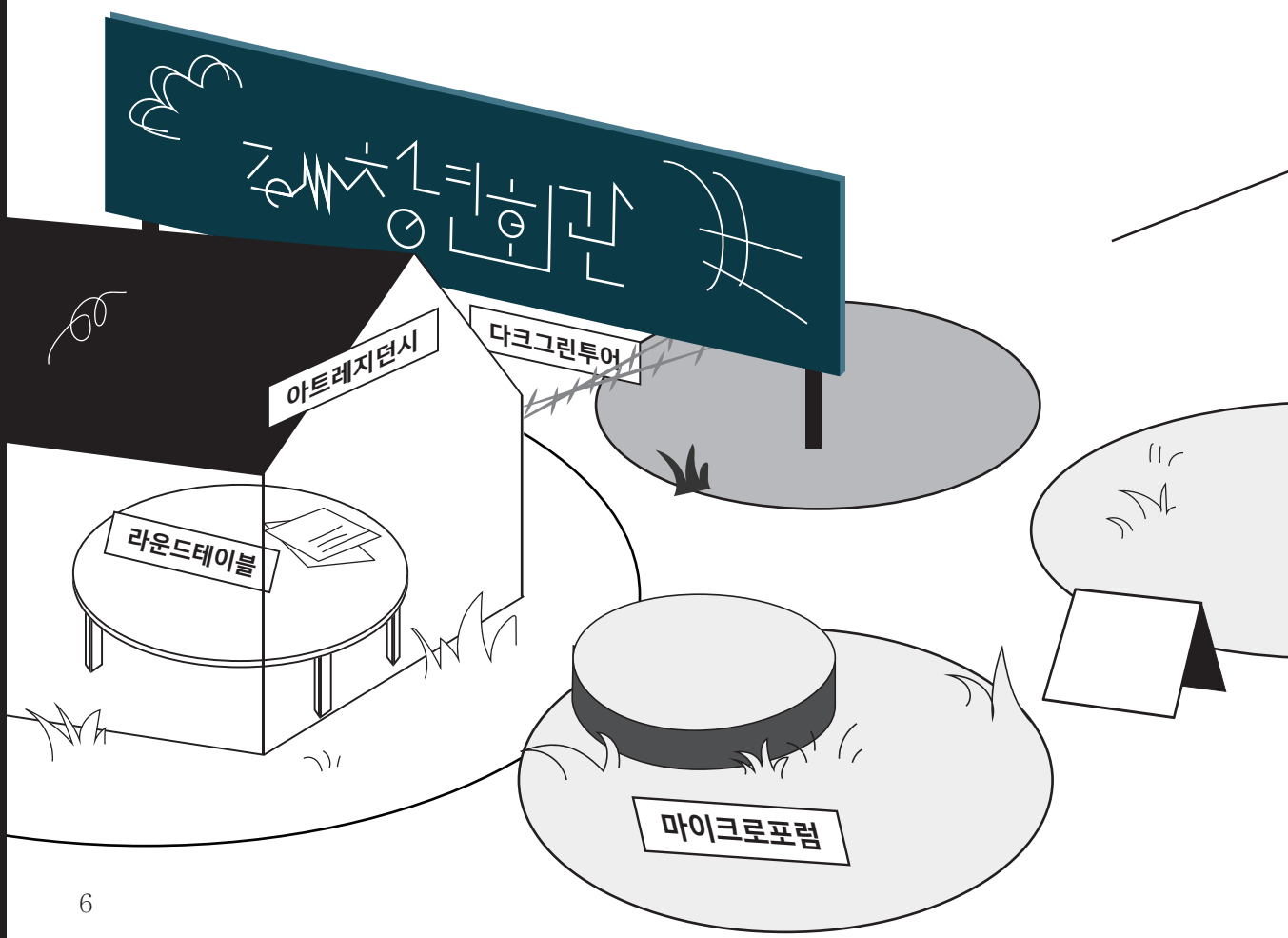
황유택 (패디)

선을 넘는 사람들

사회에서 외면하고 있는 문제를 다양한 예술적 관점으로 바라보고 표현하고자 모였다. 2019년부터 융복합 예술에 관심을 가지고 기술 융합 콘텐츠, 공간 운영, 청년 예술가 네트워킹 공간 조성등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안미빈 (세빈)

2020
제주청년회관
활동



_ 제주청년예술인잡담회

_ QUEER SPACE : 광장에서 집앞까지

_ 2020 제주청년회관 아트레지던시

- 아트워크숍 1. 만남의 방법
- 다크그린투어 1. 강정마을
- 반상회 1
- 아트워크숍 2. 융복합

_ 제주청년회관 네트워킹파티 : 영상제

- 다크그린투어 2. 제주서부
- 오픈스튜디오
- 마이크로포럼

- 제주청년예술인잡담회

ZE×JEJU×YOUTH×ARTIST?

제주청년예술인잡담회

2020년 9월 17일 제주시 생느행,

Ze주청년회관과 제주 청년예술인들 간의 첫 만남!

제주지역의 다양한 청년예술가들이 모여 소통하며 이후의 행보와 담론에 대해 자유롭게 발화하는 장입니다. 몰랐던 동료들의 존재를 확인하고, 제주에서 예술하기, 코로나 시대에 살아남기 등에 대한 깊은 마음을 털어놓으며 공감대를 형성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 제주청년예술인잡담회 진행 현장 사진 ▼

- QUEER SPACE : 광장에서 집앞까지

'퀴어 예술'과 '퀴어 공간'이라는 개념은 여전히 논쟁적이나, 도시공간 안에서 퀴어문화 향유를 통해 퀴어한 공간을 창출해냈던 다양한 사례들을 통해 전국 각지의 퀴어 문화 생태계를 진단하고, 지역에서의 퀴어 공간의 가능성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1부. "퀴어문화축제 21년, 시민권 투쟁부터 문화축제까지"

퀴어문화축제는 성소수자들이 공공공간에서 스스로를 호명하는 정치 집회인 동시에 '퀴어문화' 향유의 장이기도 합니다.

서울과 대구는 각각 21년, 12년간 다양한 시도를 통해 퀴어문화 교류의 장으로의 가능성을 모색해왔습니다.

오랜시간 퀴어문화측제를 개최해 온 조직위원회들과 함께 퀴어문화축제가 '문화축제'로서 기능해 온 과정과 고민들을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합니다.

발제자

- 지수
  (서울퀴어문화축제 사무국)
- 배진교
  (대구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

2부. "퀴어 프렌들리, 지역 주민과 만나다"

'퀴어 업소'외에도 '차별 없는 가게', '모두를 위한 공간' 등의 이름을 붙이고 등장한 가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일상적인 공간에서 지속성을 가지고 퀴어 프렌들리한 가게를 운영하는 이야기를 듣고자 합니다.

왜 '퀴어 프렌들리'한 가게로 운영하게 되었는지, '퀴어 프렌들리'한 공간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어떻게 찾아나가는지 등의 이야기를 들으며, 일상적인 공간에서 사람들에게 '퀴어 프렌들리'함을 어떻게 보여주고 접근가능하게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나눕니다.

발제자

- 유선
  (인포숍카페 별꼴)
- 오늘
  (모두를 위한 사진관 오늘의 나)

* 1부 "퀴어문화축제 21년, 시민권 투쟁부터 문화축제까지"

"…… 이제 올해 축제 이야기를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2020년은 퀴어들에게 정말 다사다난한 해였습니다. 혐오와 낙인찍기가 너무나도 쉽게 이루어지는 상황이었고, 코로나19가 심각한 상황에서 올해 축제를 어떻게 진행할지 내부적으로도 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장소는 어디로 하며, 온라인 축제라는 첫 시도를 이렇게 급하게 준비할 수 있는지, 온라인으로 한다면 가시성은 어떻게 높이며 참여자들이 즐길거리를 만들 것인지, 후원금액의 감소로 인해 적자 직전의 상황에서 참여자의 수가 보장되지 않은 축제를 무리해서 열 것인지. 축제가 9월로 미뤄진 것은 코로나19가 진정될 때까지 기다린 것도 있지만, 사실 이 수많은 고민거리들을 단박에 타파할 뾰족한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많은 고민을 했지만 고민한 시간들이 무색하게 결국 올해에도 제21회 서울퀴어문화축제를 열었습니다. 일단 제20회 한국퀴어영화제는 원래 준비하던 슬로건과 행사 형태를 변경해 “스크린은 멀어져도 퀴어는 가까이”라는 슬로건으로 개최를 했습니다. …… 사람들이 잠시나마 퀴어로서 온전히 존재할 수 있었던 한국퀴어영화제의 영화관이 공포의 장소가 되느니, 코로나 시대에서 오프라인보다 조금 더 안전할 수 있는 온라인을 택하자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져서 커다란 스크린으로 보지 못한다는 것이 아쉽긴 하지만 이렇게 역대 최초로 온라인 영화관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

- 서울퀴어문화축제 사무국 지수 발제 中

◀ 제1회 대구퀴어문화축제 무대 모습

"…… 처음 축제를 할 때만 하더라도 퀴어가 뭔지 성소수자는 어떤 사람들인지 시민들이 알지 못해서 축제를 하면서도 방해를 받지 않았다. 시대의 흐름이기도 하지만, 언론과 교회 등 입에 오르내리면서 퀴어문화축제가 어떤 축제인지 많은 시민들이 알게 되었을 것이다. 예로, 시민들의 반응이나 관공서에서의 공무원들의 태도를 보더라도 매 년 달라지고 있음을 느끼고, 실제로 재작년에는 중부경찰서에서 축제현장에 투입되는 전경들과 정보과 경비과를 대상으로 전국 최초로 인권교육을 실시하였다. 대구 지역에서도 뜨거운 이슈의 중심에 있던 대구퀴어문화축제를 주제로 조직위원장이 직접 담당 경찰들을 상대로 강의를 했다는 것이 의미가 있었고 좋은 평가로 이어졌다.

대구퀴어문화축제는 대구지역에서 인권축제로 자리잡았고 2019년 제11회 대구퀴어문화축제 장소를 대중교통 전용지구에서 할 만큼 위상이 높아졌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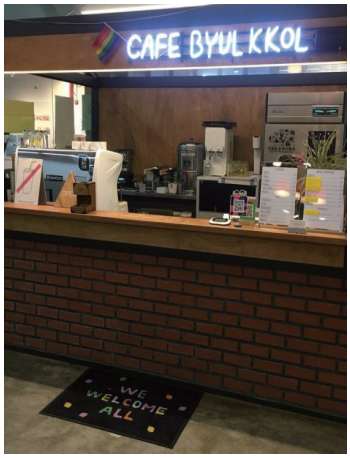
- 대구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 배진교 발제 中

* 2부 "퀴어프렌들리, 지역 주민과 만나다"

"…… 창문카페별꼴의 운영 경험을 통해 지역사회에서 소수자에게 안전하고 열린 공간이란 무엇일까를 더 깊이 생각하게 되었어요. 저희 매니저들 중 3명이 노들야학 낮수업 교사이기도 한데, 성인 중증발달장애인 학생들과 함께 하는 수업이예요. 그래서 학생분들이랑 카페나 식당 등 지역의 가게를 이용하는 일이 잦은데 그럴 때마다 눈치를 보게 되거나 쫓겨나는 일을 겪기도 했어요.

그 중에 몇 명은 성소수자이기도 하고, 또 비건 채식을 하기도 하니까 이것저것 따져가며 가게를 찾아가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든 일이었어요. 그래서 최소한 쫓겨나지 않고 편히 있을 수 있는 가게의 리스트를 만들자! 라고 했다가, 그런 가게를 쉽게 주변에서 찾을 수 없어 직접 섭외도 하고, 차별하지 않겠다는 약속도 받고, 경사로 설치도 하고 인권교육도 같이 받는 방식으로 조성을 했어요. 작년에 시작한 〈차별없는가게〉 프로젝트가 그것인데요. wewelcomeall.net 에 들어가시면 가게 위치와 접근성 정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 인포숍카페 별꼴 유선 발제 中



인포숍카페 별꼴 모습 ▲

"…… 저는 우선 일상의 순간과 모습을 담는 공간으로서 제 사진관이 생활 공간에 가까이 위치해 있길 바랐습니다. 다들 퀴어의 공간이라고 하였을 때 떠올리는 이태원, 홍대, 종로3가 등을 벗어나 일상에서 만날 수 있는 공간이 되길 바라는 마음이 컸기에 장소 선정은 더욱 어려웠습니다. 그러던 중 2015년 당시에도, 그리고 지금도 활동 중인 서울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 사무실이 망원동에 위치해 있었고, 그 외에도 여러 단체들이 망원동을 중심으로 위치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기존 퀴어들이 모이는 게토에서 벗어나 망원동에 '오늘의 나'를 운영하겠다고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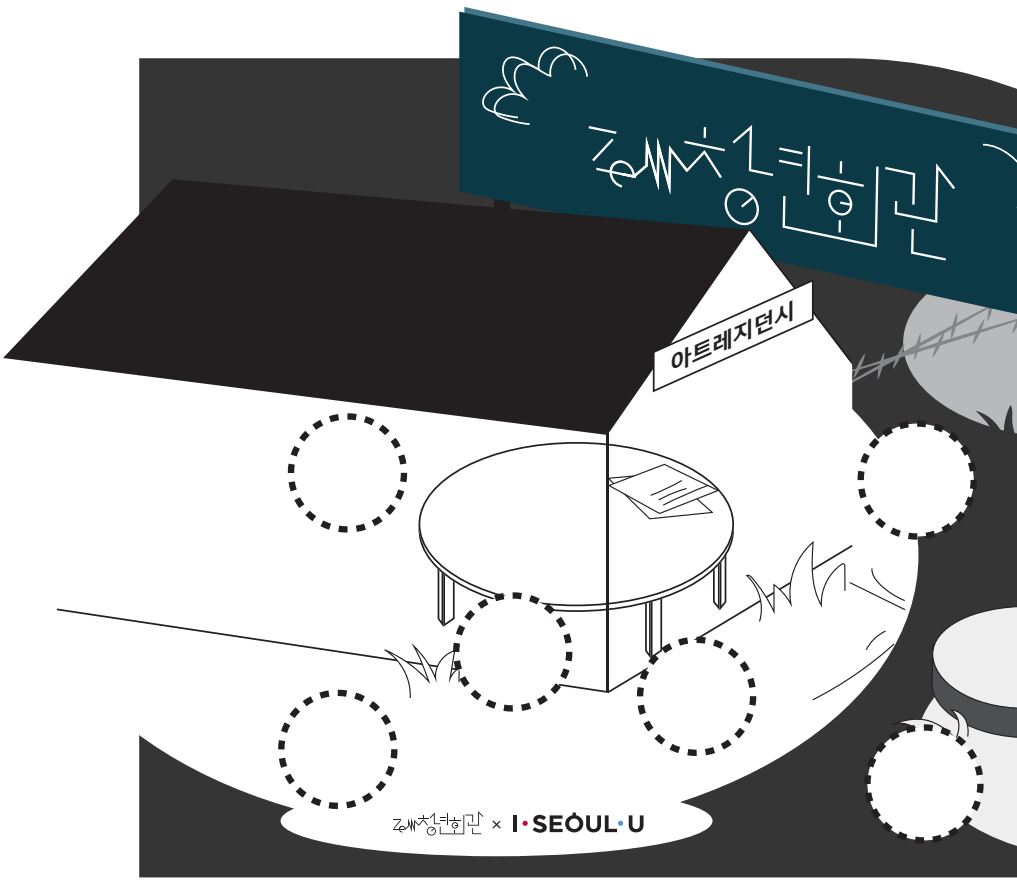
비퀴어 중심의 사고에서 벗어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손님이 굳이 말하지 않는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으며, 전형적인 비퀴어 시선의 대화들을 일체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눈에 보이는 성별로 손님을 판단하여 “남자는 이렇게 찍어야합니다.” 또는 “여자는 이렇게 찍으셔야죠.”와 같은 전형적인 성별이분법을 공고히 만드는 행위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나’는 ‘나’답게 촬영하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노력하고 있으며, 모두가 사용 가능한 성중립 화장실을 갖추고 있습니다. 더불어 성소수자 관련 이슈에 대해 가능한 참여하고 지지하며 함께 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쌓이다 보니 주변에 알려져서, 이제는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사진을 누구와 촬영하고 싶은지에 대한 불필요한 문의 없이 방문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 모두를 위한 사진관 오늘의 나 오늘 발제 中

제주청년회관
아트레지던시

퀴어예술가들이 지역과의 만남을 통해
휴식-교류-실험의 과정을 겪는 곳



OPEN CALL FOR QUEER ARTIST

** 퀴어예술가란?*
스스로를 '퀴어예술가'로 규정하거나 명명할 수 있다면 해당 공모에 지원하실 수 있습니다. 이에 관해서, 기획팀에서 어떠한 확인이나 판단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 2020 제주청년회관 아트레지던시 프로그램

- 아트워크숍 1. 만남의 방법
- 다크그린투어 1. 강정마을
- 반상회 1
- 아트워크숍 2. 융복합

\+ 제주청년회관 네트워킹파티 : 영상제

- 다크그린투어 2. 제주서부
- 반상회 2
- 오픈스튜디오
- 마이크로포럼

_ 참여작가

- 고현종
- 기린
- 김승환
- 모과
- 아무개
- 전서영
- 제제

- 아트워크숍 1. 만남의 방법

'사람과 공간 사이,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를 만남, 탐색, 알아가기'라는
목표를 가지고 진행되는 아트워크숍.

참여예술가들은 간단한 미션을 받게 되고, 이를 통해 마을을 산책한다.
그리고 스스로 발견하게 된 것들을 타인과 공유한다.
(선택참여프로그램)

11월 24일 화요일
09:00 - 12:00 (3시간)
강정마을 일대에서 진행

참가자 준비사항
: ① 열린 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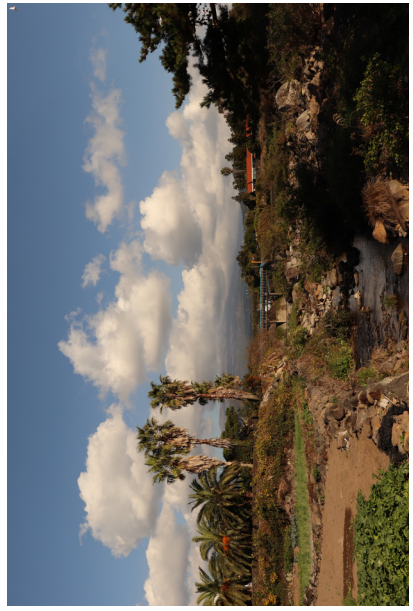
기획/진행 : 이상
사진 : 사랑해

모과가 찾은, 향하는 가위 ▼

아무개가 찾은,
전애인(? !)의 강아지-사랑이의 동생 ▼

고현종이 찾은, 남겨진 수도꼭지 ▼

제제가 찾은,
멀리 포크레인이 보이는 풍경 ▼



- 다크그린투어 1. 강정마을

레지던시 참여예술가들이 3주간 지낼 마을을 투어한다.
참가자들이 자연스럽게 스쳐가거나 경험할 수 있는 공간보다는,
일부러 찾아가야 만날 수 있는 장소들을 중심으로 진행한다. (필수참여프로그램)

11월 25일 수요일
06:40 강정교에서 결집 -> 멧부리로 이동
　　* 일출보기 / 안내 / 간단한 아침식사 / 천천히 머무르기
08:00 멧부리 -> 미사천막 -> 냇길이소&담팔수 -> 제2강정교 공사구간
10:30 제2강정교 공사구간 -> 미사천막 -> 기지운동장
11시 마무리

참가자 준비사항
: ① 오래 걷기 위한 몸과 마음의 준비
② 멧부리에서의 시간은 추울 수 있으니 따뜻한 겉옷 챙기기
③ 사진 촬영 동의여부

기획 : 이상
진행 : 멸치
사진 : 사랑해

◀ 멧부리의 일출

동그랗게 앉아서 설명을 듣는 아무개 ▶

- 아트워크숍 2. 융복합

맵핑과 인터렉티브 작업 사례를 소개하고, 직접 체험해보는 워크숍. (선택참여프로그램)

11월 29일 일요일
17:00 ~ 19:00

프로그램 순서
1. 프로젝션 맵핑이 예술과 융합된 사례 소개
2. 인터렉티브 기술을 활용한 예술 작품 소개
3. 인터렉티브 기술 체험
(메이키메이키 키트, 행동 머신러닝 등)

기획 : 안미빈 (세빈)
진행 : 윤대원
사진 : 안미빈 (세빈)

- 제주청년회관 네트워킹파티 : 영상제

단순 네트워킹만이 아닌, 서로의 연결을 만들어가는 시간. 평소 보고 싶었던 영상, 동료에게 소개해주고 싶었던 영상 등을 가져와 진행하는 GV 형식의 네트워킹 파티. (필수참여프로그램)

11월 28일 토요일

17:30 ~ 20:30

강정마을미술관 살롱드문

참가자 준비사항

: ① 함께 즐기고 싶은 영상

② 포틀럭 파티를 위한 음식과 음료

기획/진행/사진 : 패디

- 다크그린투어 2. 제주서부

제주서부 지역(예래휴양형주거단지, 알뜨르비행장, 섯알오름, 사계바다)을 투어. 공간이 지닌 에너지를 통해 영감을 얻고, 관광지 이미지에 가려 보여 지지 않는 제주의 역사와 현재를 공유한다. (선택참여프로그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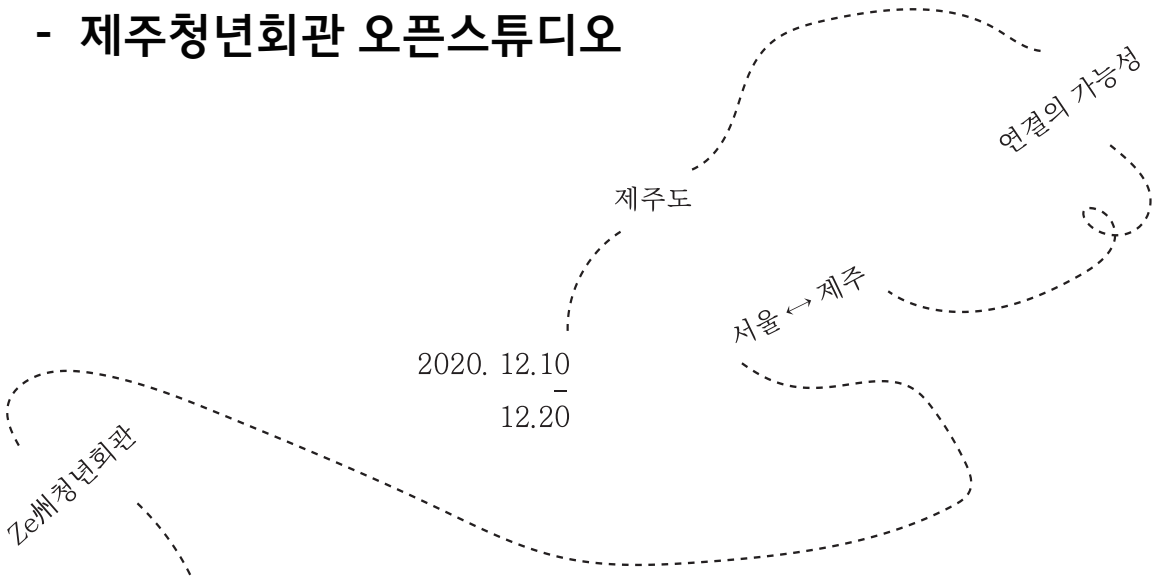
12월 2일 수요일
13:00 강정에서 출발 -> 예래휴양형주거단지
-> 섯알오름 -> 알뜨르비행장 -> 사계바다 -> 강정 복귀 17:00
* 각 장소마다 간단한 안내진행 / 천천히 자유롭게 머무름

참가자 준비사항
: ① 따뜻한 겉옷 챙기기
② 필요한 사람은 간식거리 준비

기획/운전 : 이상
진행 : 이상, 현정
사진 : 사랑해

예래휴양형주거단지 ▲▲▲
멀리서 더 먼 건물을 살펴보는 제제 ▲▲
최고의 가이드 현정과 베스트 드라이버 이상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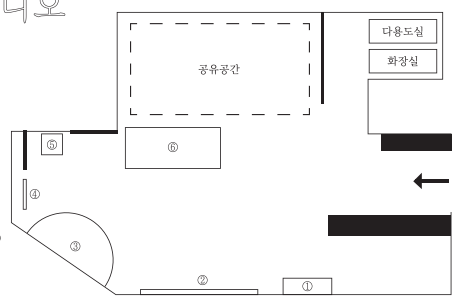
- 제주청년회관 오픈스튜디오



QUEER ARTIST RESIDENCY in Jeju

오픈스튜디오 2020

OPEN STUDIO



강정마을미술관 살롱드문
(서귀포시 말질로 161번길 1)
/
서부민박
(서귀포시 이어도로 602)

전서영
① <Blue print, memory.>, 평면설치, 시아노타입 드로잉
② <기억도면>, 1220 x 2440, 평면설치, 가벽위에 드로잉
"주어진 기억을 가공하고 편집합니다."

–

제제
<바다의 주인은 우리가 아니다.>
③ 시리즈 1 <바다 생물의 은신처 정원>
"산호는 푸른 하늘이 되고 지느러미는 내가 되어
산호 앞을 헤엄치듯 그 깊은 바다에 자리를 잡는다."
④ 시리즈 2 <범섬 (해를 품은 섬)>
"그의 모습은 나를 녹아 버릴 정도로 뜨겁고 생각보다 크게 느껴졌다.
그날의 숙취와 나의 자만함은 하늘로 치솟는 것만 같았다."

–

김승환
⑤ <작가 개별 인터뷰 영상>
고현종, 전서영, 아무개, 기린, 모과 5인 인터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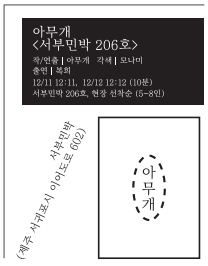
–

고현종
⑥ <주름진 노트>
"드로잉주워담기-펼치기"

모과
<나, 그리고 나의 이야기>
작/연출 | 모과　　배우 | 사랑책, 아무개
12/11 19:00 (40분)
강정마을미술관 살롱드문
예매 링크 :
https://forms.gle/HgKogkjB4P22auJ97

기린
<내가 무지개 유니콘이라면>
12/12 4:20, 5:00, 5:40 (20분)
강정마을미술관 살롱드문
예매 : 문자 예매 (010-3341-8661)

아무개
<서부민박 206호>
작/연출 | 아무개　각색 | 모니미
출연 | 복희
12/11 12:11, 12/12 12:12 (10분)
서부민박 206호, 현장 선착순 (5-8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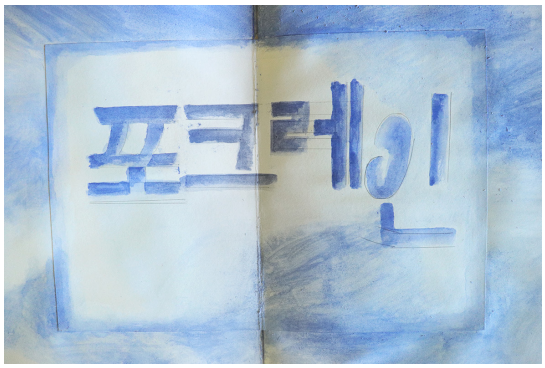


참여 예술가 | 고현종 기린 모과 아무개 전서영 제제　촬영 | 김승환
공간조성 | 제윤　현장감독 | 이대웅
기획 | 제주청년회관 기획인단(사랑책 신현정 안미빈 모니미 이상 이한솔 황유택)

- 참여 예술가 소개

고현종 GoHyunjong

"드로잉 주워담기-펼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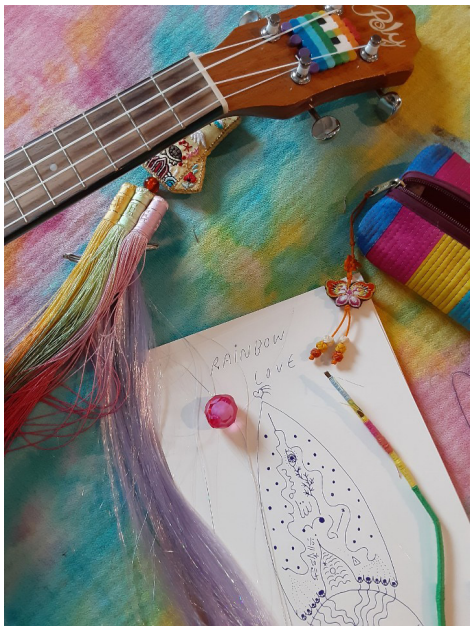


<주름진 노트> (2020) 중 부분

가변크기, 탁자 위에 설치, 종이를 엮은 노트

기린 moontage

"무지개 유니콘은 어떤 사랑, 어떤 꿈, 어떤 자유를 즐길까? "



공연

<내가 무지개 유니콘이라면> (2020)

작은 책자와 영상 설치, 퍼포먼스

12/12 4:20, 5:00, 5:40 (20분)
강정마을미술관 살롱드문

김승환 Kimseunghwan

"다들 어떻게 지내시나요? "

<제주청년회관 인터뷰 아카이빙> (2020), 13분 41초, 1채널 비디오, 반복재생

모과 Moga

"상호존중이해 일인극 <나, 그리고 나의 이야기>는
서로가 서로에 대해 이해하기 위해
낯설 수 있는 타인이 되어보는 일인극입니다."

공연

<나, 그리고 나의 이야기>

작/연출 | 모과
배우 | 사랑해, 아무개

12/11 19:00 (40분)
강정마을미술관 살롱드문

아무개 Unknown

공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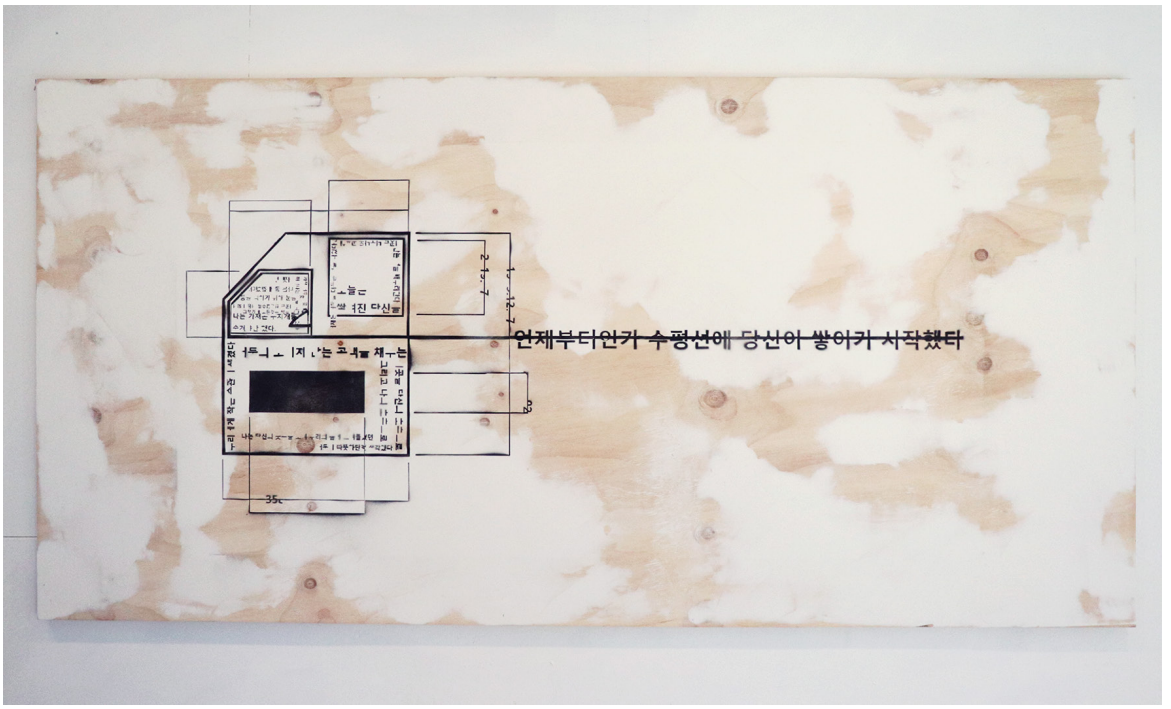
<서부민박 206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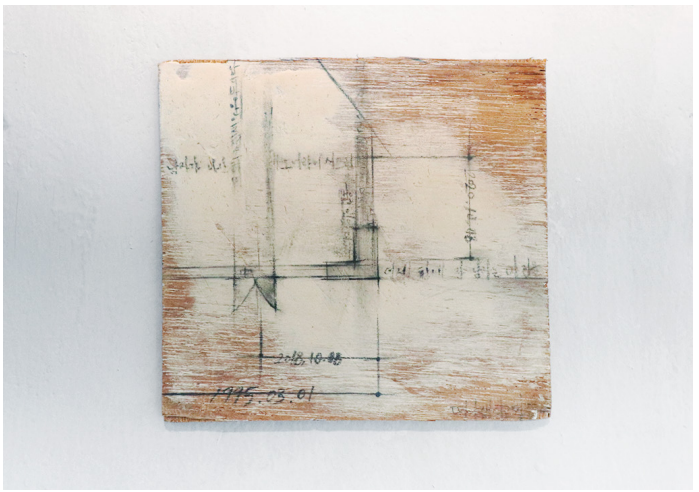
작/연출 | 아무개
각색 | 모나미
출연 | 복희

12/11 12:11 (10분)
12/12 12:12 (10분)
서부민박 206호

전서영 Jeonseoyoung

"주워진 기억을 가공하고 편집합니다."





<기억도면> (2020)

1220 x 2440, 평면설치, 가벽위에 드로잉

제제 ZeZe

<바다의 주인은 우리가 아니다> (2020)
(1) 바다 생물의 은신처 정원

"산호는 푸른 하늘이 되고 고래는 내가 되어
산호 앞을 헤엄치듯 그 깊은 바다에 자리를 잡는다."

<바다의 주인은 우리가 아니다> (2020)
(2) 범섬

"그의 모습은 나를 녹여 버릴 정도로 뜨겁고 크게 느껴졌다.
그날의 숙취와 나의 자만함은 하늘로 치솟는 것만 같았다."

제주청년학교 기획단 이야기

신현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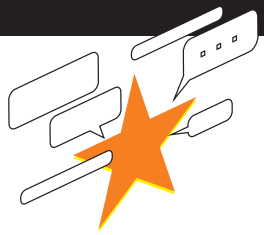
왜 교류해야 하는가?
왜 연결되어야 하는가?
문화 이식은 때로는 원주민의 일상을 파괴하고, 거대한 자본을 삶터에 개입시키며 기존의 공동체를 파괴하기도 한다. 그러나 어떤 이식은 이후에 뿌리를 내리고, 원 생태계와의 교배를 통해 완전히 새로운 것을 탄생시키기도 한다. 이러한 연결을 기대했다.

청년은 새로운 흐름이나 전환이 필요할 때 불리워지는 존재라고 생각한다. 청년들이 무조건적으로 새로운 것을 해 줄 수 있을 거라 기대하는 것처럼.
퀴어예술을 바라볼 때도 비슷한 시각이지 않은가? 전혀 새로운 존재들이 새로운 것을 해낼 것이란 막연한 기대.
그러나 청년이나 퀴어 모두 그저 곁에 존재하는 것들이다.

김민경 (사랑해)

추상적인 구조를 상상하는 일에서 벗어나 실제 사람들을 만나는 일이었기에, 레지던시 실행 단계에서야 즐거웠다.

뜻밖에 마주치는 풍경들이 좋아서 열심히 셔터를 눌렀다. 카메라 렌즈는 나보다 빨리, 더 멀리 갈 수 있어서 아카이빙을 핑계로 한참 뒤에서 걸었다. 그 거리감이 편안했다. 사람이 만드는 소리들로부터 평화로운 거리, 뒤쳐진 나를 기억한 누군가 뒤돌아보면 그 사랑스러운 걱정을 덜어주려 뛰어가는 일. 새로운 환영과 0부터 시작되는 관계들. 그것들이 좋았다.



정민채 (으네)

청년들이 실험하고 휴식할 수 있으며, 자생적이고 지속적인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함과 동시에 실패해도 괜찮다는 위안을 줄 수 있는 소통의 장을 조성하려 했다.

반상회를 진행하며 '일상을 공유할 것이 있을까? 계속 얼굴보고 이야기하고 밥 먹고 작업을 하는데, 더 공유할 게 있을까? 이러다가 반상회에서 공유하는 내용들이 이미 공유된 내용이면 어떡하지?' 등의 고민을 했다.
반상회라는 형식적인 프로그램 안에서 진행되는 일상 공유보다, 자연스럽게 나오는 일상의 순간들은 더 풍부하고 비형식적이기에.

이한솔 (올리)

기획 단계에서 미리 정했던 소주제들이 과연 지금도 유효한 주제인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제주 내 여러 공간 전환 사례들이 코로나19로 인해 현재는 존재하고 있지 않은 경우가 많아 적절한 논의가 될 수 있을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고, 이 사업이 지속될 수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공간전환 케이스를 찾아보는 것이 맞을까 하는 고민들을 나누었다.

그러던 중, 레지던시 참여 예술가 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오히려 주제를 쉽게 찾을 수 있었다. 참여자 분들이 이 사업이 어떻게 기획된 사업인지 등에 대한 많은 질문을 주셔서, 기획인단들의 고민과 생각을 나눌 수 있는 자리가 더 필요하지 않을까, 라는 식의 이야기를 나누었었다.

이상언 (이상)

공간과 기억을 기반해 장소 중심의 탐색/공유/창작 워크숍을 통해 공연을 만들고 싶은 욕구를 가지고 있었고, 설계작업을 해왔다. 직접 경험했던 것과 새로 구상해본 것들을 이번 워크숍의 목적(창작이 아닌 만남)에 맞게 방향을 수정해서 진행했다. 기획단계에서 할 수 있었던 상상의 영역과 당장 현실에서 시도할 수 있는 영역 사이의 간극을 확인하는 과정을 통해 계획을 수정해 가게 되었다.

특정 문화와 예술을 조성하는 실험이라는 것이 무얼 의미하는지 고민했다. 명쾌한 답을 내릴 수는 없었지만, 장기적 프로젝트로 가져갔을 때에 성패를 가름할 수 있다는 점이 공유되었다.

황유택 (패디)

'예술가-지역성'과 '기획자-지역성'에 초점을 맞춰 진행했고, 그 방향성을 찾기 위해 주제/소재를 깊게 들어가보는 포럼들을 진행했다.

개개인의 만남이 기본적인 것 같다. 사람과 사람이 만나 이루어지는 경험들. 다른 지역에서 잘 되고 있는 것들을 가져와보는 것도 실험일 수 있지만, 활동하는 사람들이 공간을 경험하며 실험하는 방법들이 더 재미있는 것 같다.

기대 했던 연결의 가능성은 충분히 볼 수 있었다. 컨소시엄간의 연결의 가능성, 주제-소재와 지역간 연결의 가능성 등 정성적 기대에는 충분히 부합했다.

안미빈 (세빈)

처음 이 사업을 발견하고 제안 했을 때에는 타 지역 예술가와의 만남 또는 서로에 대한 공유의 목적이 있었다. 큰 목적에서 벗어나진 않지만, 더 세세하고 섬세한 팀원들을 만나 더 탄탄한 주제 의식을 탐구했다.

기획자와 실무자는 역할이 다름을 느낀다. 그에 대한 고민을 이번 사업에서 많이 했다.(물론 실무자에 가까웠다고 본다.)

힘써준 팀원들들에게 너무 감사하고 고마운 마음이 크다.

낯을 많이 가려서, 11월이 지나서야 여러분이 그립고 보고싶고 했습니다.

감사한 분들

강정마을미술관 살롱드문,

강정평화상단협동조합, 강정평화센터,

개척자들, 공간 사는 반디, 구럼비유랑단,

길멍, 김기홍, 김재현, 대원, 말엄마,

멸치, 매모루 사장님, 문상훈, 배진교, 복희,

비건테이블바람 안재홍, 살거스, 생느행,

서부민박, 성프란치스코평화센터,

손호, 수상한 집, 쉘터애월, 아트세닉,

안녕 모슬포, 안지현, 양상호,

오늘, 유선, 임도윤, 저기, 지수, 코사마트, 하쿠,

현태림, 행화탕, 홍지수, cabeza

제주청년회관의 프로그램 기획과 실행, 홍보에 많은 도움을 주시고
따뜻한 사랑을 보내주신 분들께 지면을 빌려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